

# 2017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강소*	학번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7. 6. 25. ~ 7. 16

##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조용하지만 교통편이 별로 없어서 밖으로 나가기에 불편하다 개인차량이 있으면 편하겠지만 따로 나가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강의실이나 시설은 약간 초등학교같은 분위기에 전체적으로 건물이 낮고 작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편안한분위기에 강사님들이 수업을 가르치고 못따라간다면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수업에는 어렵지않게 따라갈 수 있다. 수업준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고 늦지않게 출석만 하면 될것같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추가비용은 들지않는다. 준비물로는 썬크림과 모자 물정도면 될것같다. 혹시 모르니 적은돈도 준비해가면 될것같다.</p> <p>Activity 종류로는 카약킹, 동굴체험, 치코대학 탐방, 샤스타댐, 샤스타 폭포, 샌프란시코, 등이 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매우 건조하면서 덥다 햇빛이 따가울정도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안전하다 가끔 학교내에 노숙자가 들어오지만 경비원들이 있어서 괜찮다
숙소	학교기숙사( <input checked="" type="radio"/> ) 홈스테이 ( <input type="radio"/> ) 외부 숙소( <input type="radio"/> ) 기타( <input type="radio"/> )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나쁘지않다
식사	학교식당 ( <input checked="" type="radio"/> ) 외부식당 ( <input type="radio"/> ) 기타 ( <input type="radio"/>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식당을 주로 이용했고 나쁘지 않았다. 가끔 한국음식이 그리지만 종종 라면을 끓여먹었다. 한국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외국 친구들을 위해서 전세계 재료를 파는 마트에 가서 김밥재료와 잡채재료를 사다 음식을 만들어줬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학교내에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불편하다 버스는 1시간에 한 대꼴로 있다. 근처 마트까지 걸정도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200,000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1,300	출국 전 사전 납부
기념품	150,000	초콜렛이나 간식거리
현지마트	50,000	
합계	231,300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학교에서 따로 수건을 챙겨주지만 몸용으로 큰수건1개 일반크기 수건1개 손수건만한 크기의 수건1개 총3개만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수건이 부족할수도 있어서 따로 몇 개더 챙겨가면 좋을것같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모자를 챙겨가면 좋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미국 대학교를 직접 느낄수 있는 좋은경험 이여서 좋았고 앞으로도 이같은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생긴다면 또다시 신청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또한 외국 친구들을 사귄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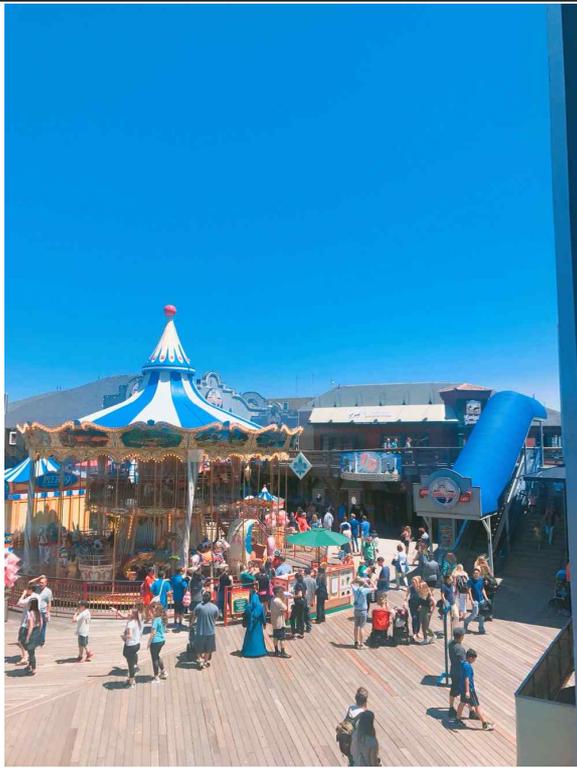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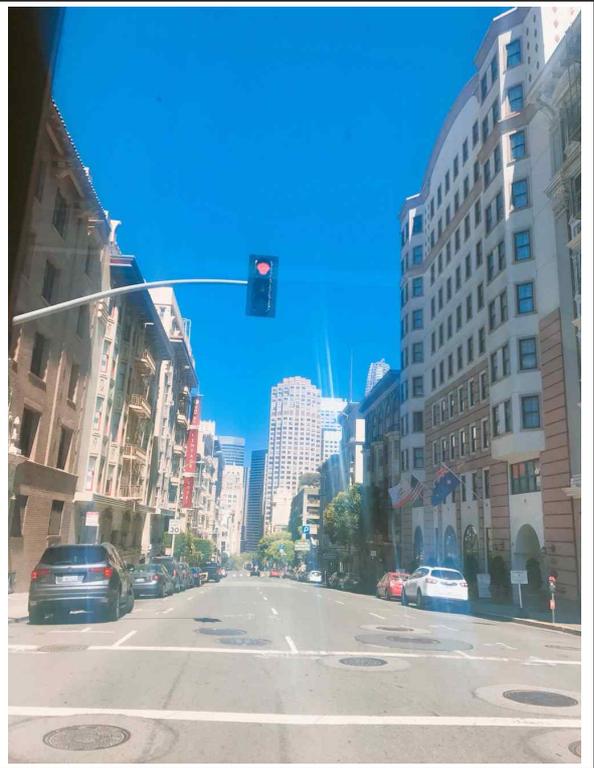
샤스타 학교 주차장 앞에 보이는 건물처럼 학교 건물 대부분이 낮다.



7/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여서 친구들과 함께 미국의 독립기념일 기념 불꽃놀이를 관람했다.



샌프란시스코의 Fisherman's Wharf라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서울대공원과 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애기들이 많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동네를 한바퀴 도는  
트램을 타고 이동중이다.



엑티비티중에 하나인 카약킹을  
하는중이다. 많이 탈수있기 때문에  
썬크림을 발가락까지 발라줘야 한다.



샤스타 근처에 있는 폭포로 가는데는  
1시간정도 걸린다. 구경은 10분이면 한다.